

숨바꼭질

김정선 글 ·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

4학년 도덕 5. 하나 되는 우리

3학년 도덕 1. 나와 너, 우리 함께

분야: 그림책

활용: 연극, 낭독, 있었던 일 이야기하기

주제어: #6·25 전쟁 #평화

선정 내역: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작성: 울진 노음초등학교 오은경 선생님



■ 책의 내용

한마을에 이름이 똑같은 두 소녀가 있다. 한 아이는 양조장 집 박순득, 한 아이는 자전거포 집 이순득이다. 전쟁이 터지고 두 아이는 헤어진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 노랫말에 맞춰 서로 전쟁으로부터 무사하기를 기원한다. 피난을 다녀온 이순득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박순득을 찾아 나서는데... 이름이 똑같은 두 아이의 엇갈린 운명을 보여주며, 전쟁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 들어가며

흔히 전쟁이라 하면 적과 아군을 떠올린다. 그래서 ‘누가 더 나빴네, 판단이 잘못되었네.’ 하고 말하지만 대개의 사람들, 특히 아이들한테는 적과 아군의 구분이 원래 없다. 아이들은 다만 전쟁 피해자일 뿐이다. 이 책은 6·25 전쟁으로 일상의 평화와 친구를 빼앗긴 두 단짝 친구의 상실감과 그리움을 숨바꼭질이라는 노래로 그려냈다. ‘못 찾겠다 뽕꼬리’라는 긴 울음에는 친구를 찾지 못하는 마음뿐 아니라 이산가족과 실항민들의 아픔까지 묻어낸다.

■ 학습목표

아이들에게 6·25 전쟁은 아주 오래전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 책 속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들이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어른들을 따라 피난을 떠나야 하는 바로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이의 눈높이로 전쟁의 아픔을 훨씬 잘 이해하리라 기대한다. 전쟁 때문에 평범한 하루를 빼앗기고, 친구와 가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쟁의 참상을 느끼고 이해해보며, 아이들과 평범한 이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단계	활동 내용	차시
책 읽기 전	· ‘꼭꼭 숨어라’ 전래동요 배우기 · 다 함께 숨바꼭질하기	1차시
책 읽기	· 친구와 헤어졌다! · 6.25 전쟁을 알고 있니?	1차시
	· 책 속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찾아내기 · 어떤 소리가 들릴까?	2차시
책 읽은 후	· 순득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차시
	· 낭독극 만들기	1차시



책 읽기 전

1. 다 함께 숨바꼭질

- ‘꼭꼭 숨어라’ 전래동요를 배워보자. 전래동요라서 여러 버전이 있지만 이 책과 관련지어 가장 간단한 리듬과 가사로 부르는 노래를 찾아 불러보자. 단순한 노래일수록 숨바꼭질하기에 더 낫다. 물론 아이들이 가사를 바꾸어도 좋다.

꼭꼭 숨어라 / 머리카락 보일라 / 옷자락이 보일라
꼭꼭 숨어라 / 발뒤꿈치 보일라 / 치맛자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 장독 뒤에 숨어라 / 대문 뒤에 숨어라

앉아서도 보이고 서서도 보인다 / 꼭꼭 숨어라
다 숨었나? / 다 숨었다!
찾아보자 찾아보자 / 어디 어디 숨었나
요 숨었네 / 찾았다!

- 시간 안에 못 찾으면 “못 찾겠다 피꼬리!”를 크게 외친다.
- 이제 숨바꼭질을 다 함께 하는데 가능하면 술래는 숨바꼭질 노래를 “다 숨었나?”까지 크게 부른다. 덜 숨었으면 “아직”이라고 대답하고 다 숨었으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술래가 찾으러 다닌다. 5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찾기로 하자. 굳이 시간을 정하는 까닭은 술래가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못 찾겠다, 피꼬리!”를 외치고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신나게 나오는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다. 억지로 못 찾게 할 필요는 없다. 교사가 술래가 되어 “못 찾겠다, 피꼬리!”를 외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책 읽기

1. 친구와 헤어졌다!

- 책을 읽기 전에 늘 같이 노는 친구가 있는지, 단짝 친구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이때 혹시나 외로운 아이가 없는지 세심하게 질문해야 한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늘 같이 놀던 친구(들)와 헤어지게 되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또 마음이 어떨까?” 하고 질문한다.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각자의 생각을 들어본다. 시간이 충분하면 둘씩 짝지어 장면을 만들어봐도 된다.
- 친구와 헤어지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던 뒤, 자연스럽게 책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지금, 우리가 읽을 책에도 단짝 친구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친구와 헤어진 것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본다.

2. 6·25 전쟁을 알고 있니?

- 표지를 보여주면서 언제, 어디서 일어난 걸지 떠올려보게 한다. 표지를 넘겨 흑백 면지를 잘 보면 옛날 학교 모습을 한 ‘달성국민학교’를 볼 수 있다. 아이들의 모습과 주변의 모습을 보면 쉽게 오래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길지 않게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6·25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대구 근처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이 책을 더욱 감동적으로 읽기 위해서 이 배경 지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간단하게라도 6·25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 다만 지나치게 전술적이거나 길지 않도록 조심한다. 책의 실제적인 배경은 달성에서 낙동강을 건너 부산 피난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명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이야기가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디에서든, 어쩌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났을 이야기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책 속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찾아내기

-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같이 읽어보자. 문장은 짧기도 하고 숨바꼭질 노래를 변형시킨 것이므로 아이들과 함께 읽어도 된다. 다만 글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래에 맞춰 술래가 된 아이(처음에는 양조장 집 순득이, 뒤에는 자전거포 집 순득이)의 시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직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을 충분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찾아내면서 읽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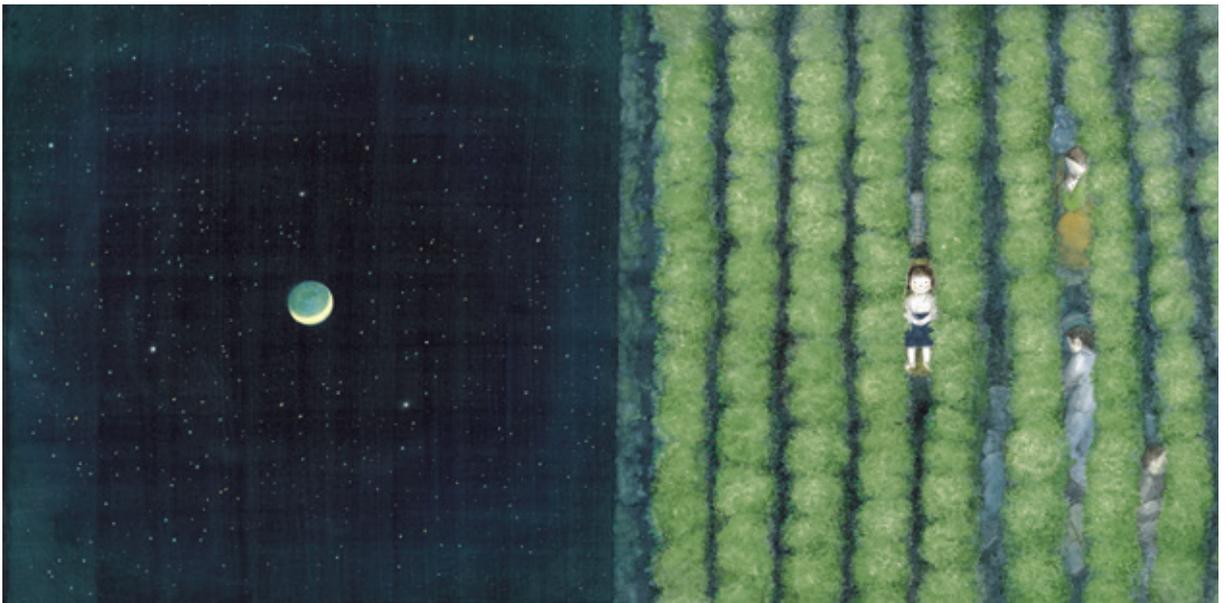
4. 그림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 책을 읽으면서 그림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자. 장면마다 쉽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소리는 자연의 소리도 좋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괜찮다. 예를 들어 피난 가는 장면에서 “순득아, 빨리 가야 해!”가 나올 수도 있고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또는 “우리도 얼른 떠납시다.” “우르릉 쾅!”이 나올 수 있다. 여름밤 콩밭에 누워 있는 장면에서는 “찌르르 찌르르.” “사사사.”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엄마 배고파.” 하는 소곤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찾은 소리는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림책 장면 속에 붙여준다.

- 소리 찾기 활동을 장면마다 하기 어렵다면 미리 몇 장면을 골라서 질문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모두 책을 가지고 있다면 책을 다 읽고 장면을 나누어 소리 찾기를 할 수도 있다.

- “못 찾겠다 피꼬리” 장면과 바로 이어져 있는 겨울의 텅 빈 양조장 장면에서는 소리를 찾기보다, 안타까움과 그리운 마음에 집중하며 고요한 느낌을 충분히 느끼도록 하자.



책 읽기 후

1. 순득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 책을 다 읽고 양조장 집 순득이와 자전거포 집 순득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문장을 만들어보자. 8~10개 정도 문장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종이에 한 문장씩 크게 쓴다.(양조장 집 순득이에 대한 서술은 찾기 어려울 수 있고, 양조장 집 순득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종이에 쓰인 문장을 칠판에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본다. 각 문장을 읽고 어떤 장면이었는지 다시 같이 이야기해본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찾은 소리 중에 어떤 소리가 있었는지 떠올려본다. 문장이 나타내는 장면마다 소리를 한두 가지씩 정하고 실감나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한다. 팀을 나누어 문장을 읽고 소리를 내고, 문장을 읽고 소리를 내면서 열 문장을 차례대로 읽는다.

- 양조장 집 순득이는 어디로 숨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자전거포 집 순득이는 어떤 마음일까?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2. 낭독극 만들기

- 이번에는 책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 두 순득이를 정한다.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되니 누가 되어도 된다. 모두 동글게(또는 타원으로) 앉는다. 장면마다 찾은 소리 중에서 한가지씩 정한다. 이때 다 같이 정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학생이 많다면 장면을 나누어서 결정해도 된다. 두 순득이는 낭랑하게 읽는 연습을 한다. 이제 소리가 정해졌으면 학생들이 그림책 장면을 볼 수 있도록 교사의 위치를 정한다. 두 순득이는 아이들의 가운데에서 책 한 권을 같이 들고 선다. 두 순득이가 “나는 양조장 집 박순득, 나는 자전거포 집 이순득, 우리는 늘 함께, 해가 나고 달이 날 때까지 온종일 내내”까지 읽는다.

동글게 앉아 있는 아이들은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된다. 새벽녘 피난 행렬 장면에서 정한 소리를 낸다. 다 함께 소리를 내도 괜찮고 이 장면을 맡은 아이가 정한 소리를 내면 다른 아이들이 큰 소리로 두 번 따라내도 괜찮다.

먼저 술래가 되는 아이는 양조장 집 순득이다. 양조장 집 순득이를 맡은 아이가 “숨바꼭질할까? 내가 먼저 술래”라고 읽으면 자전거포 집 순득이를 맡은 아이는 자리로 들어간다. 양조장집 순득이가 피난 촌에 도착한 장면에서 “숨었니?” 하고 물으면, 자전거포 집 순득이가 “숨었다.” 하고 대답한다. 그 뒤로 양조장 집 순득이를 맡은 아이가 “어디 어디 숨었니? 남색 치마 보인다. 하얀 얼굴 보인다.” “찾았다 순득이.”까지 읽고 자리로 들어간다.

자전거포 집 순득이를 맡은 아이가 앞으로 나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첫 장면 “이제 내가 술래. 똑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부터 끝까지 읽어나간다. 매 장면마다 앉아 있는 아이들은 정한 소리를 낸다. 두 순득이의 대화를 낭독하는 사이사이 효과음을 넣는 형식으로, 끝까지 읽는다.

- 분위기가 괜찮다면 이제는 앉아 있는 아이들이 그 소리에 맞는 간단한 동작을 하나씩 정해서 동작까지 따라하면서 다시 읽는다. 순득이의 역할도 바꾸어본다.

- 책을 함께 읽은 뒤, 마음에 다가오는 소감을 서로 나눠본다.